

## 李宇衍 (イ・ウヨン) 韓国落星台經濟研究所經濟研究所研究委員

한국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이우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번역, 출간한 책을 통해 램자이어 교수는 위안부와 위안소의 계약구조를 밝혔습니다. 위안부의 계약기간은 1~2년이었고, 수백엔에서 수천엔이라는 거금을 전차금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위안부에게 지급하였고, 위안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일정한 비율, 즉 대개는 6:4의 비율로 위안소와 위안부가 나누어 갖고, 이 몫으로부터 위안부는 전차금을 상환해 나갔으며, 위안부가 전차금을 모두 상환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위안부는 위안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이 계약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韓国落星台經濟研究所の李宇衍 (イ・ヨンウ) です。

今回私たちが翻訳・出版した本を通して、ラムザ이어教授は慰安婦と慰安所の契約構造を明らかにしました。慰安婦の契約期間は1~2年であり、数百円から数千円という金額を前借金という名前で、前もって慰安婦に支給し、慰安婦が儲けたお金は一定の比率、たいていは6対の比率で慰安所と慰安婦が分け合い、この分から慰安婦は前借金を返済していき、慰安婦が前借金を全て返済したり、契約期間が終了したら慰安婦は慰安所を離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この契約の中心的な内容です。

일반적인 노동계약과는 상이한 이상과 같은 위안부의 성노동 계약은 성매매노동의 특수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이 직종을 선택하는 여성들에게는 고수입을 보장한다는 위안소의 약속이 믿을만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소는 고액의 전차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미 전차금을 받은 위안부에게는 열심히 성노동에 임하도록 유인(incentive)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가 전차금을 모두 상환하면, 비록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위안소를 떠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一般労働契約とは異なる、以上のような慰安婦の性労働契約は、性売買労働の特殊性からくるものです。社会的評判に致命的な（社会から後ろ指をさされるような）この職種を選ぶ女性たちには、高収入を保障するという慰安所の約束が信頼できるもの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だから慰安所は高額の前借金を支払った。すでに前借金を受けた慰安婦には、懸命に性労働に取り組むように誘引（incentive）を与える必要がありました。だから慰安婦が前借金を全て返済すれば、たとえ契約期間が終了していなくても、慰安所を離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ました。

위안부와 위안소의 계약을 이상과 같이 정리하고 보면, 위안부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들어가기 훨씬 전 20세기 전반부터 일본과 조선에서 시행되고 있던 공창제도의 계약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간 많은 학자들이 위안부제도를 공창제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램자이어 교수는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위안부와 위안소(업주)의 행동패턴을 고찰함으로써, 위안부 공창설을 확고한 이론적 기반 위에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소위 “위안부 강제연행설”은 설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慰安婦と慰安所の契約を以上のようにまとめてみると、慰安婦制度はある日突然空から降って来たような、そのような新し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日本がアジア太平洋戦争に入るずっと前の20世紀前半から日本と朝鮮で施行されていた公娼制度の契約と同じものでした。これまで多くの学者たちが慰安婦制度を公娼制度の延長と主張してきたが、ラムザ이어教授はゲーム理論の観点から慰安婦と慰安所（業主）の行動パターンを考察することで、慰安婦公娼説を確固たる理論的基盤の上に構築しました。これにより、いわゆる「慰安婦強制連行説」は立場を失うようになりました。

간명한 논리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전쟁기의 성노동계약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 발표된다는 소식이 2021년 2월에 한국에 전해지자 또 다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소위 비하하였다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2004년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반일종족주의}의 주저자입니다), 그를 둘러싼 사태 이후에 벌어진 일로서 가장 큰 소동이었을 것입니다.

簡潔な論理と具体的な証拠を提示したラムザイヤー教授の論文「太平洋戦争機の性労働契約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が発表されるというニュースが2021年2月に韓国に伝わると、例によってまたまた大きな騒動が起きました。ハーバード大学教授が慰安婦の祖母を売春婦としていわゆる卑下したというのです。慰安婦問題に関して、2004年にあったソウル大学イ・ヨン퐁教授 ({反日種族主義}の主著者です)、彼を巡る事態以後に起こったこととして、最も大きな騒動だったはずです。

2021년 2월,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과 교수 본인에 대한 규탄과 비난 방송이 한 달 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송사 SBS는 2월 1일부터 한 달간 21회에 걸쳐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감정적 규탄과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차분한 비판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격렬한 반응이 나온 것은 위안부 '강제연행설', '성노예설', '20만설'이 한국의 언론, 학계, 국민의 의식을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年2月、ラムザイヤー教授の論文と教授本人に対する糾弾と非難放送が1ヶ月間終わらなかった。韓国放送会社SBSは2月1日から1ヶ月間21回にわたって関連報道を

どンドン発信しました。他の放送局もあまり変わりませんでした。世論は感情的な糾弾と非難の一色でした。冷静な批判と議論はありませんでした。このように激しい反応が出たのは、慰安婦「強制連行説」、「性奴隷説」、「20万説」が韓国の言論、学界、国民の意識を広範囲かつ強力に支配しているからです。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멉니다. 이것이 일본과의 차이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국민적 상식으로 안착하는 데 앞으로 수십 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의 한국은 1990년대 전반의 일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요시다 세이지라는 作話家와 일부 언론에 휘둘리면서 위안부 강제연행설에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日本軍慰安婦問題において、韓国は日本に比べて前に進むべき道がはるかに遠く厄介です。これが日本との違いです。慰安婦問題の真実が国民的常識として安着する(根付く)のに、今後数十年がかかるかもしれません。あえて比較すると、今の韓国は1990年代前半の日本と似た状況です。当時、日本社会は吉田聖治という詐話師と一部のマスコミに振り回され、慰安婦強制連行説に籠絡されていました。

1990년대 전반의 일본에 비해 희망적인 요소도 한국의 현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위안부 사기를 청산하자고 나서는 시민사회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그간 학문의 발전으로 인해 위안부의 실체가 당시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 출간한 이 책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인 범위에서 전개되어 온 위안부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우리의 이론적, 실천적 투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990年代前半の日本に比べて希望的な要素も韓国の現状で発見されます。今、慰安婦詐欺を清算しようとする市民社会の流れが形成されており、これまで学問の発展により慰安婦の実態が当時より鮮明になってきました。私たちが翻訳、出版したこの本がまさにその証拠です。この本は、韓国だけでなく国際的な範囲で展開されてきた慰安婦詐欺を根絶するための私たちの理論的、実践的闘争において強力な武器になります。

ラムザイヤー教授が論文を発表した後、慰安婦強制連行論者たちは 해당 학술지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논문 철회를 집단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한 논문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면 별도의 논문을 발표하여 비판하는 것이 상식이거늘, 아예 상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야만적 심성이 폭로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만과 싸우기 위해, 우리 사회는 학문과 언론의 자유라는 신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비상식적인 요구는 그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램자이ヤー 교수의 논문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번역, 출간되고 양국 국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오늘을 불러오는 데 오히려 크게 한몫을 하였습니다.

ラムザイヤー教授が論文を発表した後、慰安婦強制連行論者たちは該当學術誌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に論文撤回を集团的に要求しました。ある論文について同意できなかった場合は、別の論文を発表して批判することが常識であります。これによって最初から相手の口に猿轡を噛ませようとする彼らの野蛮な心根が暴露されたのです。このような野蛮性と戦うために、私たちの社会は学問と言論の自由という信条を共有しています。彼らの非常識な要求は、彼らの意図とは反対に、ラムザイヤー教授の論文が韓国と日本で翻訳、出版され、両国国民が容易に読めるといふ今日の状況に至ったことに、むしろ大き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

오늘날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학문적 자유의 묘지, 신성불가침의 영역, 살벌한 협박의 무대입니다. 강제연행설, 성노예설, 20만설을 부정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경희대학교 최정식 교수는 강의 과정에서 위안부는 “일본군을 따라가서 매춘행위를 한 사람들”이며,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로써 그는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고발되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今日、韓国では、慰安婦問題は、学術的自由の墓場、神聖不可侵の領域、殺伐とした脅迫の舞台です。強制連行説、性奴隷説、20万説を否定すれば刑事処罰を受ける危険を避けられません。最近、慶熙大学のチェ・ジョンシク教授は、講義の過程で慰安婦は「日本軍に従い売春行為をした人々」であり、「連行されたのではなく自発的に行った」と発言しました。彼は大学から懲戒を受け、慰安婦の名誉を毀損したという疑いで刑事告発され、警察の捜査を経て検察に送られました。

2017년, 세종대 박유하 교수는 강제연행을 부인하고,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을 빌어 위안부와 일본군 병사 사이의 인간적 관계를 언급하였다고 하여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이 책을 저와 함께 번역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도 강의 시간에 학생과 토론하는 가운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하여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이 두 재판의 피고들은 “학문의 자유”라는 이유로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류석춘 교수는 이 책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정식 교수도 이 책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학문의 자유를 주장한 이 책은 한국에서도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유력한 무기요, 새롭고 활발한 토론을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2017年、世宗大バク・ユハ教授は強制連行を否定し、「同志的關係」という表現を借りて慰安婦と日本軍兵士との人間的關係に言及したとして刑事起訴されました。2019年、この本を私と一緒に翻訳した延世大学柳錫春教授も講義の時間に学生と話し合っている中、「慰安婦は売春の一種」と言って刑事起訴されました。最近この二つの裁判の被告は「学問の自由」という理由で幸い無罪判決を受けました。裁判の過程で、柳錫春教授はこの本を証拠資料として提出しました。チェ・ジョンシク教授もこの本を裁判部に提出します。米国で学問の自由を主張したこの本は、韓国でも学問の自由を守る有力な武器であり、新しく活発な討論のための証拠資料となるでしょう。

사전 협의가 없었지만,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나란히 이 책이 번역되고,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어 더욱 기쁘다는 인사로 제 말씀을 맺습니다.

事前の打ち合わせ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日本と韓国両国にて並行してこの本が翻訳され、しかもそれが同じ時期に出版された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います。そのことを最後に挨拶代わりに申し上げて、私のお話を結ばせて頂きます。